

2017학년도 옥구중학교 운영위원회(제1회 임시회)_옥구중·군산남고 통합 운영 회의



회 의 록

학교장

위원장

■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22일(월) 11:50 학교운영위원회실

■ 참석위원(정원: 8명, 참석: 5명)

● 상정안건 ●

1. 2017.09.01.자 교장공모제 신청(안)

- 참석: 김형기, 김도균, 이항근, 최용진, 허미영
- 불참: 남궁선, 최병길, 김경연
- 참석교직원: 박향
- 군산남고 운영위원 참석: 장병수, 곽진경, 백영란, 박상현, 김정복, 임광수, 김창윤

● 의사일정 ●

- 개 회
- 국민의례
- 학교장 인사
- 위원장 인사 및 개의선언
- 의안심의
- 폐 회

□ 제1안

「2017.9.1.자 교장공모제 신청(안)」

- 제안설명: 교감 이상근(군산남고)
- 제안요지
 - 2017.8.31.자로 공모교장(이항근)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결과 교장 공모제(내부형) 찬성 의견이 우세하여 내부형 교장공모제 신청(안)을 제안하고자 함.
- 질의답변
 - 박상현 위원(고) : 공모제 신청을 위해서 찬성율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지 질의
 - 교감 이상근(고) : 공문에 명시된 내용은 없으나 과반이상의 찬성이면 공모제 신청이 가능함.
 - 박상현 위원(고) : 학부모들에게 배부한 공모제 신청 안내문에 대하여 학부모님들이 내용을 몰라 운영위원들에게 전화가 다수 왔음.
공모제 신청안내문 제출 시 이항근 교장샘이 그대로 유임이 가능한 걸로 알고 찬성한 분들도 많으며, 특히 고 1학년 학부모님들이 교장선생님때문에 입학한 학생들이 다수 있으며 교장선생님의 임기만료 소식에 대해 당황하는 분위기임.
 - 장병수 위원장(고) : 이항근 교장선생님이 우리 학교에 그대로 유임하는 안에 교직원, 학부모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원하고 있으나, 현재의 제도안에서 유임은 어려워 공모제를 신청하는 상황까지 오게 됨.

- 박상현 위원(고) : 나포중의 경우를 보면 내부형 공모제로 신청했지만 내부형 공모제 선정 학교로 지정을 받지못해 초빙형 공모제로 공모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임용제에 의하여 교장선생님이 발령나는 과정에서 교장 승진후보자중에서 좋은 교장선생님을 모시기 위하여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과 노력이 있었음.
이항근 교장선생님도 교장자격증이 있으니 우리 학교에 다시 발령나서 오시기는 어려운지에 대한 질의
- 이항근 교장 : 초빙교장제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으로 교감, 전문직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장으로 발령이 가능하지만 저의 경우는 교육부 지침에 의거 임용제에 의한 발령은 어려움.
이번에 학부모나 교직원의 공모제 신청에 대한 인식을 보면서 4년전에 비해 학교의 변화, 혁신을 추구하기 위하여 공모제에 대하여 긍정적인 인식으로 달라졌다고 보며, 학교를 운영하는 동력이 될 것임.
내부형 공모제는 7개중 1개 학교가 선정이 가능하며, 자격에 있어 교직경력 있고 교장 자격여부 관계없이 공모할 수 있어 초빙형에 비해 대상의 폭이 넓음.
- 장병수 위원장(고) : 내부형 공모제 신청은 7개 학교중 1개 학교가 선정되어 어려움이 있음
- 박상현 위원(고) : 내부형 공모제 선정은 도교육청에서 선정하게 되어 선정지원 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초빙형 공모제의경우도 우리는 통합학교로 어려움이 많아 지원자가 없을 가능성도 있음. 공모제 신청을 하여도 결과는 임용제로 발령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짐.
- 김형기 위원장(중) : 학부모님들의 열의가 공모제 신청에 찬성하는 것으로 공모제 신청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짐.

- 곽진경 위원(고) : 공모제 신청은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이항근 교장 : 초빙형 공모제의 경우 현재 다른 학교에 재직중인 교장의 경우도 대상이 되어 대상의 폭은 넓음.
- 김형기 위원장(중) : 내부형 공모제 선정이 되지 않으면 초빙형 공모제로 추진하며 훌륭한 책임자를 찾아 보아야 함.
- 박상현 위원(고) : 초빙형 공모제로 지원자중 현재 교장을 하시는 경우 현실적으로 우리학교에 지원할 분들이 지원할 가능성은 적다고 보여짐. 지원대상자에 대해 학교에서 알아 보았는지 질의
- 임광수 위원(고) : 지원할 만한 대상자에 대해서 아직은 알아보지 않았으며, 학교측에서도 그동안은 교장선생님의 유임여부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졌던 실정임.
- 백영란 위원(고) : 이전에 도교육청 문의 시 이 문제에 대해 이항근 교장선생님이 유임 가능성이 있는 걸로 답을 들었음. 낮은 가능성이라도 이항근 교장선생님의 유임이 가능하다면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 장병수 위원장(고) : 현재의 제도 하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유임이 어려워 관련 법규를 바꿔야 하는데 9.1.자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백영란 위원(고) : 이항근 교장선생님의 유임은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학교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하므로 교육부 등에라도 찾아가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됨.
- 장병수 위원장(고) : 이항근 교장선생님의 유임이 어렵다고 하여 현재 중, 고 통합학교를 옥구중, 군산남고 2개 학교로 분리해 한 학교에라도 이항근 교장선생님을 다시 모시는 방법도 생각해 보았음.
- 김형기 위원장(중) :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이고 생각만을 가지고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9.1.자에 맞춰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이항근 교장 : 임명제에 의한 발령도 2년 이상의 임기가 남아야 가능함.
- 허미영 위원(중) : 교장선생님의 유임이 어렵다는 판단에서 공모제 신청에 대하여 찬성이 많았음.
- 김형기 위원장(중) : 공모제와 혁신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가 발전해 왔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의 유임이 어려우면 차선택으로 나은 교장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공모제로 신청해야 한다고 봄.
- 김도균 위원(중) : 공모제 신청이 찬성이 많은 이유는 예전의 학교로 돌아가지 말자는 학부모님들의 의견으로 보여짐.
- 곽진경 위원(고) : 중,고가 서로 연합해서 추진해 나가야 함.

- 김형기 위원장(중) : 공모제 찬성과 반대의견을 거수할 것을 제안

- 위원 일동 : 동의함.

- 표결결과: 공모제 찬성 7명, 반대 3명, 기권 2명
- 위원장: 공모제 찬성하는 안으로 가결

□ 폐회선포 (13:00)

- 위원장: 군산남고·옥구중학교 통합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운영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 기록자: 행정실장 박주미 (서명)

• 서명위원: 위원 김도균 (서명)

위원 허미영 (서명)